인도 네팔 등 24년 성지순례 노하우 한권에

붓다의 향훈을따라서

글/사진 대연 스님
해조음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 불교성지순례를 위한 길라잡이 〈붓다의 향훈(香薰)을 따라서〉가 출간됐다. 1998년 첫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후 20여 회 이상 순례를 이끈 저자 대연스님은 성지순례 전문가로 통한다. 사진은 스리랑카 성지에서 활짝 웃고 있는 대연 스님.

부처님을 바로 알기 위한 첫걸음은 곧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일이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 불교성지순례를 위한 길라잡이 〈붓다의 향훈(香薰)을 따라서〉가 출간됐다.

1998년 첫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후 20여 회 이상 순례를 이끈 저자 대연스님은 성지순례 전문가로 통한다. 대연 스님은 책 머리에서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일은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경전 배경을 알고 체험하는 일이며, 경전의 뜻을 더욱더 잘 새겨서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이 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책은 부처님 8대 성지를 비롯해 부처님의 발자취와 불교대학, 석굴 대탑과 남인도, 동인도, 네팔 카트만두까지 상세히 수록했다. 게다가 지역의 전체적인 개요와 역사 및 유적은 물론 가는 길과 먹고 묵을 곳, 관련 경전 내용까지 친절하게 가이드하고 있어 이 책 한 권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순례가 가능하다.

스님이 직접 찍은 사진과 지도, 부록으로 부처님 일대기와 인도의 각종 종교 관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는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책에 나와 있는 불교용어, 경전상의 인물 이름과 지명 등은 가능한 한 빨리어를 기본으로 사용했다. 빨리어 발음의 한글 표기법이 낯설겠지만 외국인 스님들이나 불자들과 대화할 경우, 빨리어를 이해하면 훨씬 대화가 편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성지와 유적지,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 '입장료 있음' 이라는 안내만 해 놓은 것이다. 이들 장소의 입장료와 출입 방법이 자주 바뀌어서 정보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다. 또한 여느 가이드북에 필수로 들어가는 숙박시설과 맛집 식당 등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싣지 않았다. 이들이 많은 밀집 지역만 언급한 정도이다. 요즘은 인터넷과 호텔 예약 사이트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몇 년마다 개정판이 나오는 인쇄매체의 한계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대연 스님과의 5문 5답

△1998년부터 해외 성지순례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이드북을 내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성지 순례하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기원정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드는 느낌이 언젠가 여기서 좀 오래 수행하고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기회가 닿아서 2001년서 2002년까지 기원정사 근처의 절에 살면서 공양시간 외에는 기원정사 나무 밑에 앉아 수행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순례객들이 많이 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도 사람이 가이드 하는 것만 듣고 가지 스님들의 자세한 설명도 없고, 내용도 변변치 않아서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부처님 성지에 관해 한번 제대로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사람들이 이 책 한 권만 들고 오면 누구의 설명을 따로 들을 필요 없이 훤히 알 수 있게 하는 책을 한번 만들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것이 책을 출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이 책은 8대 성지를 직접 답사하시면서 자료 수집도 하시고 사진도 직접 찍으신 걸 수록한 일종의 가이드북이네요.

=예 가이드북 맞습니다. 스님들이 그동안 성지를 순례하고 쓴 여행기들은 나온 것을 많이 봤는데, 가이드북 쓴 스님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가이드북 형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구성을 했죠.

20회 이상 다니면서 올바른 성지 순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 관련 책들을 봤어요. 또한 인도의 거의 모든 성지마다 스리랑카 절이 하나씩 있는데, 스리랑카 절의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한 이야기 거리와 자료들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와서 그것들을 많이 참고했죠. 특히 스리랑카 스님들은 주변 성지에 관한 자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모아 놓습니다. 성지가 갖는 불교적 의미는 물론 부처님일대기 부터 경전 속에 나오는 관련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취재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여 회 불교 성지순례 이끈 대연 스님
인도 네팔 지역 성지순례 가이드북 펴내
현지 자료 토대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이외에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기획한 인도 네팔 부처님 8대 성지순례에 지도법사로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순례단을 어떻게 이끄실 계획인가요?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을 지나치게 신격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가르치는 스승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나 복을 주는 기복적인 대상으로 많이 여긴게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저는 부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최상의 노력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해 완전한 행복을 증득하는 데 최상의 가르침을 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신화적인 부처님이 아닌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부분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싶은 거죠. 제가 굳이 나이 들어서 지금 순례 가이드로 나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성지로 데려가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여기서는 어떤 경을 설하셨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직접 현장에 가서 말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순례객들도 성지로 가기 전에 최소한 부처님 일대기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향훈이 아직 남아있는 8대 성지만 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화적 환상이 깨어지고 부처님에 대한 예경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연 스님만이 갖고 계신 성지순례 가이드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살짝 공개해 주시지요?

=각 성지마다 관련된 경전이 있습니다. 최초의 설법지인 녹야원은 〈초전법륜경〉, 부처님 성도처인 부다가야는 〈화엄경〉 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함께 조금이라도 읽으며 최소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앉아서 부처님이 사셨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게 잠시 명상도 좀 하는 시간을 꼭 같죠. 그래서 제가 안내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은 다른 여행사 것보다 보통 2~3일 정도가 더 길어요. 성지에 대한 개론적 설명 외에도 이곳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죠. 그리고 새벽이든 해지고 난 다음이든 잠시라도 부처님처럼 앉아서 수행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하는 수행체험들도 제가 만들어 넣죠. 인도 순례의 제 24년 노하우를 다 담았습니다.수많은 성지 순례 팀들을 현지서 많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사진 찍고 돌아서기 바빠요. 자주 올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그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제가 안내를 한다면 부처님이 다니셨던 길을 같이 잠시라도 함께 걸어보고 설법하셨던 자리에 앉아서 잠시라도 부처님 설법을 직접 듣는 것처럼 경을 읽고 느껴도 보면서 환희심을 공유하는 진정한 성지순례를 이끌어야 겠다고요.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불상 연구를 오래했기 때문에 당시에 불상을 조성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어떻게 담았는지까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우리가 굳이 외국까지 나와서 야외 수업까지 들어야 하냐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들으라고 합니다. 다녀 오시고 나면 왜 제가 강의에 고집했는지를 대부분 느끼시고 감사해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 책은 언제부터 집필하셨으며, 독자들한테 어떻게 읽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책을 출간하시게 됐는지요?

=자료 수집은 2002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국에 안 살기도 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겠냐는 생각이 들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9년에야 책을 냈지요. 불교 성지순례 가이드북 형식으로 쓰고 보니까 정보가 틀린 데도 많고 부정확한 설명도 있고 해서 언제 진짜 날 잡아서 다시 고쳐야 되겠다 싶어 준비를 하고 있다가 2년전부터 다시 이제 기회가 닿아서 재개정 한 겁니다. 성지를 가시기 전에 대충이라도 훑어보고 가시면, 성지순례를 두 번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 순례를 가시더라도 도슨트 같이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 대연 스님은?

'定慧堂 一悟 大禪師'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해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불교 국가의 불교수행센터와 사찰에서 수행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체코 등 현지 사찰서 40여 차례 영어 법문을 했다. 1998년 첫 인도 네팔 불교성지순례 이후, 2002년에는 1년간 기원정사 유적지에서 수행했다. 2008년~2013년 대구BBS '세계 불교성지순례' 외 다수 방송에 출연했다. 2009~2017년 '대구일보' 종교인 칼럼, 대구 '매일신문' 칼럼, 월간 '선으로 가는 길' 불교성지순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등을 연재했다.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제 12교구 본사 해인사 해인총림 승가대학 외래교수와 2012년 대한불교조계종 기본선원(백담사) 외래강사를 역임했다. 2013년~2014년 체코 Cesky Budejovice 지역 수행프로그램도 지도했다. 저서로는 〈인도에 갈 때는 숟가락을 가져가세요〉(2009),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2010), 번역서로는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현재 경북 영천 인오선원 선원장으로 있다.
인오선원 카페 : http://cafe.daum.net/iobmc

닝마파 전통의 핵심 논서!
티베트불교의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총합한 법장!
정해 보등론 강의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미팡 린포체가 닝마파 대원만 기도과 전 과정의 일체 교의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번역 소개되었다.
전지 미팡 린포체 조송/진메이펑춰 린포체 전수
수다지 켄포 역강/지엄 화상 한역/512쪽/값 28,000원

스님의 그림자
상담하는 비구니 스님의 자기 치유 이야기!
한국 승려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출가수행자라는, 상담전문가라는 권위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감추고 싶었을 자신의 내면까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의 경험담이자 탐험기이다.
효록 지음/국판/264쪽/값 15,000원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760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